

2022년 10월 09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7편 1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00(통463)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9장 11~24절 (구약p.769)

11.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2.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13.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14.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15.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16.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17.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18.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9.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20.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21.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22.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23.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24.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 말씀선포 / 주권자 하나님과 연약한 인생

올 한해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한남노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1만 1,934건으로 주택 반파 7건, 상가 등 침수 3,085건, 어선 파손 14건, 기타 38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앞섰다고 하나 여전히 자연 앞에 무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매우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옴에 고백을 통해 스스로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옴이 말하는 인생은,

1.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 옴은 하나님이 자신 앞에 지나가셔도 자신이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항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11~12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옴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자신은 이해할 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옴이 갑자기 재앙을 만나 모든 것을 잃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1:21)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지녔기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여 교만에 빠지고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보여지고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은 결코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앞에 자신은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그저 내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국 그것으로 입술의 죄를 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를 얻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알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참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옴이 말하는 인생은,

2.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인생의 해답입니다.

- 옴은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고, 단지 심판하실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5~16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는 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도 내세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만이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의미합니다. 분명 우리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종이 주인의 긍휼하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라면 빚을 탕감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마18:27). 이같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실 뿐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를 숨을 쉬고 살게 하는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성도는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더욱 그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옴이 말하는 인생은,

3. 세상의 모든 악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 옴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고 탄식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지금 옴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의롭게 살았으나 사탄에게 많은 재앙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신들에게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실 것이 분명하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천하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도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사랑과 긍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을 겪었던 다윗도 그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악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밖에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 악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84(통43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 폐 회 / 주기도문